



영광 불갑사 가는 길목에는 9월이면 약 300만㎡로 전국 최대 군락을 이루는 상사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올해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영광군 제공

## 기아차, 글로벌 경험 토대로 브랜드 한층 도약한다

고급차 분야 최고 디자이너 '카림 하비브' 영입

인피니티 수석 디자인 총괄, 내달 기아디자인센터장 부임  
 영입 계기로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제고 박차 가할 계획  
 내달 31일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80여점 전시도



카림 하비브

기아자동차는 지난 6일 기아차 브랜드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نيسان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 수석 디자인 총괄인 카림 하비브(Karim Habib·49세)를 기아디자인센터장 전무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기아자동차에 합류하게 될 카림 하비브 전무는 현대자동차그룹 루크 동커블게 디자인담당 부사장과 함께 기아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동시에, 기아자동차에서 개발하는 모든 차의 내외장 디자인, 컬러, 소재 등 전 영역에 걸쳐 디자인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카림 하비브 전무는 다양한 고급차 및 컨셉트카를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아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림 하비브 전무는 인피니티를 비롯해 독일의 BMW, 벤츠 등 고급차 브랜드에서 중책을 맡으며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했다.

특히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바논 출생으로 이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카림 하비브 전무는 캐나다 맥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카림 하비브 전무는 디자인 교육기관 '아트 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에 진학해 디자인 관련 전문

성을 키워나갔다. 1998년 독일 BMW에 입사한 카림 하비브 전무는 5시리즈, 8시리즈, X7, 그리고 컨셉트카 '자가토 쿠페 (Zagato Coupe)' 등 주요 모델의 내외장 디자인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2007년 수석 선행 디자이너에 임명된 카림 하비브 전무는 두 개의 콩팥 모양에서 따온 '스플릿 키드니(Split kidney)' 그릴과 '아이브로우(Eye Brow)' 전조등으로 대표되는 BMW의 패밀리룩이 포함된 'CS 컨셉트'를 디자인하는 등 디자인 방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2009년 7시리즈 F01 모델을 시작으로 2011년 5시리즈 등에 적용되며 호평을 받았다.

이어 2009년 벤츠에 수석 선행디자이너로 자리를 옮긴 카림 하비브 전무는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컨셉트카 'F800', C클래스 W205 모델, 그리고 소형차 브랜드 '스마트'의 컨셉트카 등 여러 모델을 디자인했다. 2017년 일본 인피니티에서 수석 디자인 총괄을 맡게 된 카림 하비브 전무는 Q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미래형 전기 컨셉트카 '프로토타입 10' 등의 디자인 개발을 담당했다. 특히 올해 1월엔 디트로이트 모터쇼(NAIAS)에서 인피니티 QX 인스퍼레이션 컨셉트를 내세워, 역대 참가 차량 중 최초로 '최고 컨셉트 차량', '혁신적 컬러 활용', '그래픽 혹은 소재' 등 세 부분의 디자인상을 동시 수상하기도 했다. 카림 하비브 전무는 "고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순간 자동차의 브랜드 정체성이 진정성 있게 느껴져야 한다. 이 브랜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화 및 모빌리티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기아차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동차 브랜드다.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요즘 시기에 기아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루크 동커블게 부사장을 비롯하여, 몇 년 간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낸 기아차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의 루크 동커블게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글로벌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카림 하비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 기아차 브랜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며 "국제 무대에서 수차례 역량을 검증 받은 기아차의 디자인팀을 보다 한편 기아자동차가 다음달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열리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기아차 디자인센터 디자이너 110명이 직접 만든 공예,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기아자동차는 '휴머니티(HUMANITY, HUMAN+COMMUNITY)'라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에 맞춰 '환경과 경험에서 오는 역동성과 순수성'을 테마로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80여 점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 '2019 기아 디자인 아트웍스'라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품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문수 기자 zki0000@

9월 가족과 인생샷 '영광 불갑사'에서!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인생샷! 남도여행'을 테마로 '영광군 불갑사'를 9월 추천관광지로 소개했다.

영광 불갑사 가는 길목에는 봄이면 벚꽃이, 8월이면 백일홍이, 9월이면 약 300만㎡로 전국 최대 군락을 이루는 상사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불갑산(516m)기슭에 자리잡은 불갑사는 인도산 마라난타가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에 제일 처음 지은 불법 도량이라 해 부처불(佛), 첫째 갑(甲), 절 사(寺)를 따 불갑사라 이름 지었다. 불갑사는 보물 제830호 대웅전, 보물 제1377호 목조삼세불좌상, 보물 제1470호 불복장전적 등 귀중한 문화재의 보고다.

불갑산에서는 매년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 올해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아시아에너지경제

새롭게 도약하는  
 아시아에너지경제가  
 능력있는 지역 사·군 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10-9192-8048  
 팩스 : (062)227-0084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전화문의:(062)227-0000 / 010-9556-0000(직통)